



◇해발 1천2백미터 높이에 있어 인적이 드문 관계로 지난 93년 발굴 때 법당 긴 초석들과 기와·도자기 편들이 묻혀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한라산 영실 존자암지의 발굴 현장.



◇병진스님 작 발타라존자.

만 화 **법구경** 경

이리서는이의 장 남의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외로운 길 가기에 전념하라 이항원

'한국 최초의 절'...성지로 재탄생

한라산 존자암지를 가다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직계제자 발타라 존자가 불법을 널리 퍼라는 스승의 명을 받들고 제주(탐라)에 도착, 전법에 나섰다.

문헌상으로 구전으로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의 현장. 지난 93년 발굴 고종까지 마친 '존자암지' 과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이 아니라 그보다 8백년 앞선 부처님 열반 직후인가.

발타라 존자가 9백 나한을 거느리고 와서 전법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전법륜지를 보게 된다는 설레임을 안고 한라산 존자암지에 오른다.

손에 잡힐 듯 다가서는 영실 기암을 마주한 채 영실 주차장에서 왼쪽 산길로 접어든다.

그 옛날 존자암의 규모를 알려준다. 가람의 형태는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가장 위편에는 국상재(國相齋)를 지낸 제단이 자리한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단과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석종형 부도이다. 부도의 지름은 80cm, 높이는 약 130cm로 모양이 특이해 아직까지도 제작년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발타라존자가 직접 부처님의 사리를 이 부도에 모셨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기단은 8개의 돌로 나뉘어진 받침석이 받치고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광정도를 상징하고 사방 어디에서도 경배할 수 있게 한 점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유일한 부도. 다공질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석종형부도로 석기모니 부처님의 진신시기가 모셔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2천5백년전 발타라존자 전법설 93년 발굴작업...복원 기다려

법당초석·부도등 보니 초전법륜지 실감

말로 하면이데 이 존자가 9백 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리주에 많이 나누어 살았다고 하였다. 서로 전하기를 탐몰리주는 곧 탐라를 말한 것으로 지금의 제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존자암'의 이름은 발타라 존자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존자암지가 있는 영실 '불래(佛來)오름' 역시 '부처님이 오신 봉우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 발타라 존자와 그 권속들이 왔던 곳을 암시하고 있다.

수행문을 지나 10분쯤 걸었을까. 아무리 가물어도 수량이 절할 법한다는 계곡을 끼고 평평한 분지 존자암터가 나타났다. 근대군데 초석이

때문인지, 지난 1993년 제주도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마친 존자암 유적은 다른 유적들보다 교란이 적고 비교적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와나 도자기 편이나 등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제는 초전법륜지로서 복원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학자들은 "해안을 통해 인도에서 직접 이국 제주로 불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기와불교를 비롯 고대사에 남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을 통해 불교가 소수림왕 2년에 최초 전파됐다

는 학설에 놀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존자암복원추진위원장 주진아스님(법통사 주지)은 "한국의 불교의 초전법륜지로서 존자암은 꼭 복원돼야 한다"는 서원을 세우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복원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스님은 전통사찰로서의 복원뿐 아니라 참선도량까지 함께 건립할 계획을 밝힌다.

'당5백 절5백'이란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제주도는 곳곳이 사지(寺址)요, 불교적 지명이 도처에 널려 있다.

한국 최초의 사찰, 그리고 한국불교의 초전법륜지로서 존자암이 여법히 복원되어 세계적 성지순례터가 되기를 기원하며 발길을 돌렸다. (제주=이경숙 기자)

불교성순교지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발: 6월 3일 ·동참금: 100만원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 6월 4일 ·동참금: 95만원	시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 6월 3일 ·동참금: 188만원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루판-우룸치-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 6월 2일 ·동참금: 118만원	대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케이- ·출발: 6월 5일 ·동참금: 65만원		벵·네팔 10일 ·출발: 5월 27일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제-라사-카트만두-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 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 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 5월 30일 ·동참금: 195만원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유문석굴)-송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도·네팔·태국 10일 ·출발: 5월 26일 ·동참금: 150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릿·스라이임부넛)-방콕(세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837-10
 02)544-1533 (代)